

보 도 자 료



3월 27일 오전 8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

◆ 홍보팀

(팀장 이지영, 담당 강민구)

Tel : 032-770-8630, 8631

Fax : 032-770-8709

◆ 2018. 3. 26.(월) 배포

◆ 총 4쪽 (본문 2쪽, 첨부 2쪽)

아라온호, 세계 최초로 남극 빙붕 붕괴지역 탐사한다

라센C 빙붕 붕괴로 노출된 바다에서 12만 년 전 과거환경 연구 진행

- ☐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 빙붕 붕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내밀었다.
- ☐ 극지연구소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3월 27일 뉴질랜드 남섬의 항구도시 리틀턴을 출발해, 지난해 7월 남극 라센C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경기도 절반 크기의 얼음 덩어리 (빙산 A-68)와 빙붕의 붕괴로 12만 년 만에 빛에 노출된 바다를 탐사한다고 밝혔다.
- ☐ 빙붕 (ice shelf)은 남극대륙 위의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두께 약 200~900 m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, 빙붕이 무너지거나 녹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- ☐ 빙붕으로 덮여 있던 바다의 독특한 환경과 생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으며, 지난 2월 영국과 독일 연구팀이 라센C 빙붕 붕괴지역을 탐사하여 과거 빙하기 해양환경과 생태계 연구의 단서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두꺼운 해빙으로 인해 접근에 실패했다.

- 극지연구소와 미국, 칠레 연구원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12만 년 동안 빙봉에 가려져 있던 바다 속 해저지형을 탐사하고 퇴적물과 해수, 생물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.
- 또한, 남극의 얼음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빙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도 관찰한다.
- 지난해 10월 인천항을 떠난 아라온호는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로스해와 아문젠해에서 빙권변화 등 2차례의 연구를 수행했으며, 라센C 빙봉을 비롯한 남극반도 해역의 탐사를 마치고 오는 6월 국내로 돌아온다.
- 라센C 빙봉 탐사팀을 이끄는 이민경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“미지의 영역에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접근하는 만큼, 이번 연구항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남극 기후변화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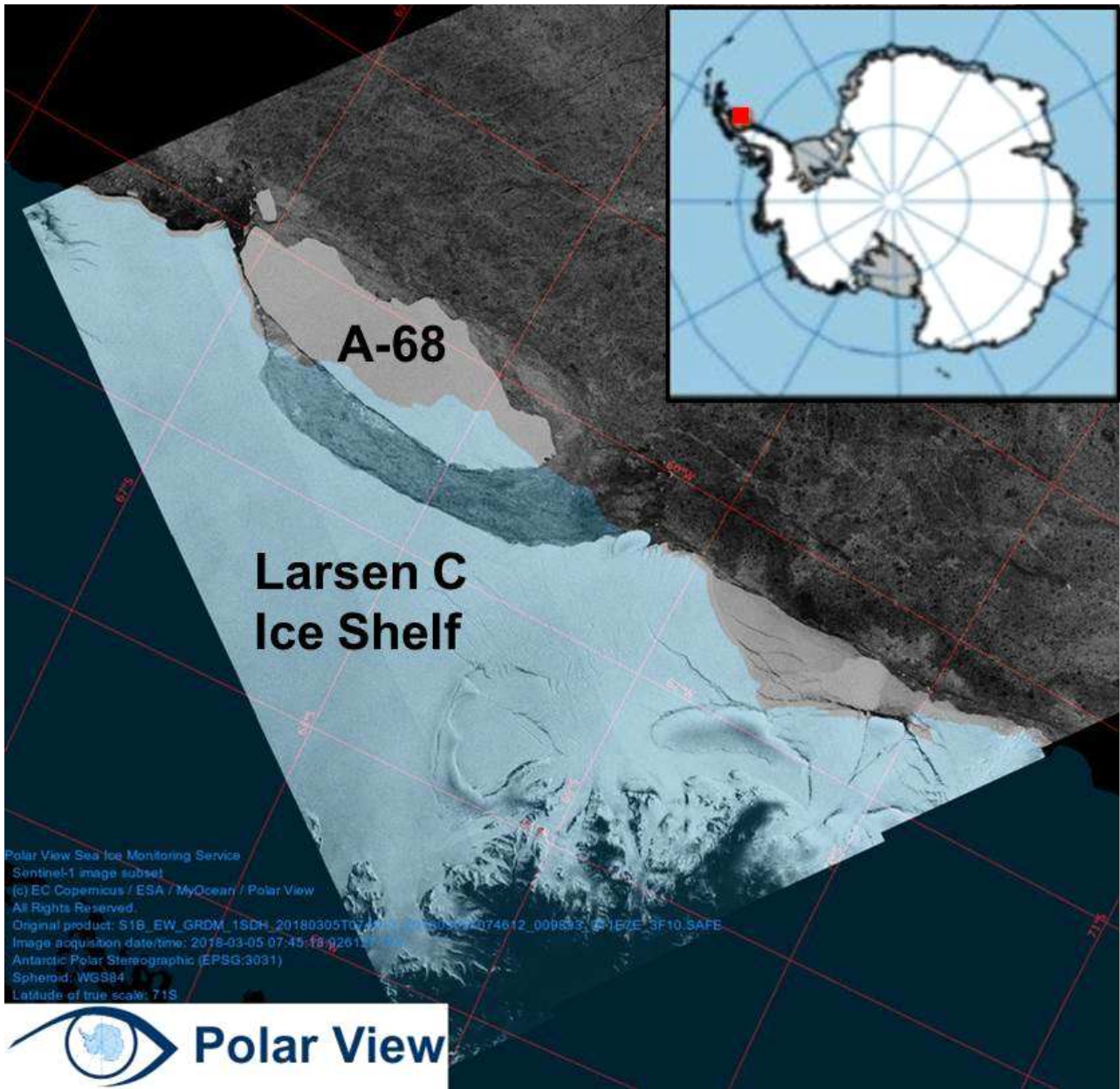
그림1. 라센C 빙봉 위치도 및 빙산 A-68 (위성사진)모습

그림2. 빙봉 (ice shelf) 개념모식도

극지의 한국, 미래의 도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팀장 (☎ 032-770-8630 / 010-3602-9305) 또는 강민구 행정원 (☎ 032-770-8631 / 010-5444-63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림1

라센C 빙붕 위치도 및 빙산 A-68 [위성사진] 모습



2018. 3. 5. Sentinel-1 SAR (Synthetic Aperture Radar) 위성 영상

http://www.polarview.aq/images/106_S1jpgsmall/201803/S1B_EW_GRDM_1SDH_20180305T074513_3F10_S_1.jpg

그림2

빙붕 (ice shelf) 개념 모식도

